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엄지성(오른쪽·광주FC)이 청사 안으로 향하며 최지묵(성남FC)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표팀 선수들은 9일 새벽 0시 4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터키 안탈리아로 출국했다. /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벤투호 카타르행 확정 담금질 국내파 '생존경쟁' 본격 시작

25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서 훈련
15·21일 아이슬란드·몰도바 평가전
27일 레바논과 최종예선 7차전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은 벤투호가 최종예선 남은 경기는 물론, 10개월 남은 본선까지 대비하는 전지훈련을 떠났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9일 0시 4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터키로 떠나 25일까지 약 보름 동안 안탈리아의 코넬리아 다이아몬드 리조트에서 훈련한다. 그사이 15일 아이슬란드, 21일 몰도바와 평가전을 치른다. 두 경기 모두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킥오프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다. 전후이 A매치 기간이 아닌 때 진행되는 만큼, 소속팀에서 한창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유럽파 없이 국내파 중심으로 이번 대표팀이 구성됐다. 태극전사 26명이 훈련에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 가시와 레이솔 소속의 골키퍼 김승규를 제외한 25명이 K리거다. 벤투 감독으로서는 그간 K리그 경기장을 돌며 점 찍어둔 선수들을 한데 모아놓고 직접 점검할 소중한 기회다. 본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 K리그 2022시즌이 치러지기 때문에 국내파 선수들만 모아놓고 점검할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승범(김천), 최지묵(성남) 등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선수들은 벤투 감독으로부터 눈도장을 받기 위해 더 굵은 땀방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 관계자는 "최종예선 남은 경기, 나아가 본선을 대비하며 '인재의 풀'을 넓히는 게 이번 전지훈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평가전 상대인 아이슬란드와 몰도바는 모두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된 나라들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한국이 33위,

아이슬란드 62위, 몰도바 181위다. 대표팀은 터키 훈련을 마치면 레바논 베이루트로 이동해 27일 레바논을 상대로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을 치른다. 이때 손흥민(토트넘), 김민재(페네르바체) 등 해외파가 합류하며 국내파 선수 중 일부는 소속팀으로 조기 복귀한다. 다만 손흥민은 지난 6일 첼시와 리그컵 준결승 1차전(토트넘 0-2 패) 뒤 다리 근육 부상을 당해 대표팀 소집에 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레바논전 뒤에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이동해 내달 1일 시리아와 최종예선 8차전을 치른다.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란(승점 16)에 이어 2위(승점 14)에 올라있다. 4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3위(승점 6) UAE와 승점 차는 8점으로 벌어져 있다. 한국은 이번 중동 원정 2연전에서 1승만 거둬도 본선행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SK에 32-34 석패

강경민 13골·김지현 7골

광주도시공사가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8일 서울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여자부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경기에서 32-34(15-15 17-19)로 제 1승1패를 기록했다. 개막전에서 인천시청에 이겨 연승을 이어 가려는 광주도시공사와 1패를 안고 있어 시즌 첫승을 노리는 SK의 맞대결은 치열했다. 경기 내내 3골 이상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았던 팽팽한 접전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이 13골, 김지현이 7골을 터트리며 맹활약했으나 권한나(12골), 유소정(9골)을 앞세운 SK에 아쉽게 승리를 내줬다. 경기는 전후반 내내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

는 난타전이었다. 전반 초반 광주도시공사가 1-2골차 근소하게 앞서는데도 20분이 넘어가면서 SK에 따라잡혔다. 9-11 2골 차로 뒤지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민과 원선필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후반 28분 15-15로 동점을 만들어 전반을 마쳤다. 후반도 양 팀이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1-2골차 아이슬아한 승부가 이어졌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의 뒷심이 부족했다. 후반 20분이 지나면서 1골 차 리드를 내줬고 후반 28분에는 31-34 3골 차로 벌어졌다. 29분 김지현의 득점으로 1골을 만회했으나 경기 종료 직전 서아루의 원샷이 상대 골키퍼에 막히면서 아쉽게 경기를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빛고을체육관에서 부산시청공과와 홈 첫경기를 갖는다. /최진화 기자

광주여대 안산 윤곡여성체육대상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안산(21·광주여대)과 여자배구 4강 진출에 앞장선 박정아(29·한국도로공사)가 32회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을 받는다.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조직위원회는 부문별 시상자를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윤곡여성체육대상은 고(故) 김운용 전국체육대회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호 윤곡(允谷)을 따 제정한 상으로, 1989년부터 해마다 한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 체육인에게 수여해왔다.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은 여성체육대상 개인 부문에, 박정아는 단체



부문을 각각 수상한다. 아티스틱스위밍의 선구자인 박지영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이 공로상을,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이경원 코치(42)가 여성지도자상을 받는다. 탁구의 차세대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한 신유빈(18·대한항공)은 4명의 신인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페퍼저축은행 16연패...GS칼텍스에 0-3

페퍼저축은행이 9일 서울잠정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경기에서 0-3(18-25 15-25 20-25)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21패째(1승)를 기록했고 연패경기도 '16'으로 늘어났다. GS칼텍스는 승점 3점을 추가해 13승 8패 승점 43점을 기록, 2위 한국도로공사와의 격차를 승점 2점차로 좁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엘리자벳이 14점을 책임졌으나 GS칼텍스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조혜원 기자

엘리자벳과 박경현의 고른 활약으로 6-6까지 쫓아간 페퍼저축은행은 상대팀 에이스 모마의 공격에 막혀 18-25로 1세트를 내줬다. 2세트 초반 박경현의 공격이 터지면서 GS칼텍스를 추격했지만 15득점(공격 성공률 28%)에 그치며 무너졌다.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도 반전의 기미를 찾지 못했다. 안정적인 블로킹과 상대 범실로 초반 10-8까지 앞서가는 등 팽팽한 접전을 이루는 듯 했으나 GS칼텍스의 공격은 매서웠다. 결국 20-25로 3세트를 내주면서 고개를 숙였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서울 이랜드와 골키퍼 맞트레이드

윤보상 내주고 김경민 영입
공격수 이진희 1년간 임대

광주FC가 서울 이랜드와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광주FC는 골키퍼 윤보상(28)을 내주고 서울 이랜드에서 골키퍼 김경민(30)을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공격수 이진희(23)를 1년간 임대 영입했다. 김경민은 한양대 재학시절 연병별 대표팀과 2011 심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으며 2014년 신인 자유계약으로 제주UTD에서 프로 무대를 밟았다. 이후 부산을 거쳐 2021년 서울 이랜드에서 뛰며 34경기에 출장, 환상적인 선방과 슈퍼 세이브를 선보였다. 190cm 78kg의 김경민은 뛰어난 반사신경, 일대일 방어능을 갖췄다. 특히 정확한 킥으로 공격 전개 시 빌드업과 역습 상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민은 "고향이 여수인만큼 지역 팬들의 응원을 받는 게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게 해준 광주에게 감사하다"며 "광주는 강등을 당했지만 승격도 2번이나 한 팀이다. 동료들과 함께 세 번째 승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FC 김경민(왼쪽)과 이진희. /광주FC 제공

이진희는 보인고 재학시절 2016 전반기 고등리그 왕중왕전에서 득점왕 수상과 함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한양대에서는 2019 U리그 4관왕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후 2020 시즌 서울 이랜드에서 프로에 데뷔하며 14경기 1골 1도움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진희는 186cm 78kg의 탄탄한 피지컬을 이용한 포스트플레이와 헤더, 날카로운 결정력이 장점인 스트라이커다. 왕성한 활동

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에 능하며 빠른 스피드와 돌파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다. 이진희는 "중계를 통해 광주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탄탄한 조직력을 지녔다는 느낌을 받았다. 광주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면서 "임대생이라고 소홀해 하지 않고 나와 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KIA 좌완 선 놀린 영입 총액 90만 달러 계약

KIA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선 놀린(33)과 총액 90만 달러(계약금 25만, 연봉 35만, 옵션 30만)에 계약했다고 9일 밝혔다. 투수 로니 윌리엄스,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도와 계약을 체결한 KIA는 선 놀린을 영입하면서 2022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좌완 선 놀린은 미국 뉴욕 시퍼드 출신으로 신장 193cm 체중 113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 동안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8경기에 출장 5패 평균자책점 5.74를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166경기에 나서 41승 29패 평균자책점 3.48을 기록했다. 지난 2021시즌에는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10경기에 출전해 평균자책점 4.39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일본 프로야구(NPB) 세이부 라이온스에서 뛰기도 했다. 선 놀린은 평균 147km의 직구(최고 151km)를 바탕으로 체인지업, 커터, 커브 등을 섞어 던지며,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이 강점이다. 선발 경험이 많고 위기관리 능력이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혜원 기자



지난해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뛴 선 놀린.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